

名前:

현재, 모두들 인터넷을 알고 있어서
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시대에
살고 있다. 특히, 인터넷으로 여러
사람들의 의견이나 정보를 잘 얻을 수
있다. 그래서, 신문과 잡지도 예전처
럼 서점이 아닌 인터넷으로 보는 것이
가능해졌다. 그래서, 인터넷이 있기
때문에 더 이상 신문과 잡지의 존재는
예전과는 달라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
다. 그러나, 그런 종이는 이제 정말
로 필요 없는 것일까? 신문과 잡지가
없어진 데도 상관없을까?
그 대답은 '아니오'라고 생각한다.
먼저, 인터넷을 사용할 때, 꼭 전기
가 필요하다. 그런데, 전기나 전기기
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신문과
잡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.
그리고, 인터넷은 어린이부터 할머니
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았
습니다. 신문과 잡지와 비교해 보면,

인터넷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10
대 ~ 30대인 사람들에게 한정되었습니다.
인터넷, 아니, 기본적으로 컴퓨터를
모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확인하
는 것이 안 됩니다. 그런 문제가 있기
때문에 지금도 신문과 잡지와 책이 예
전부터 전해져 온 것입니다.
마지막으로, 인터넷은 특정의 사람들
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눈이 보이지
않게 된 사람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
안 됩니다. 그러나, 신문과 잡지는 그
런 사람들을 위해서 손과 손가락으로
느끼고, 읽고, 이해할 수 있는 것이
있습니다. (그것은 한국어로 '점자'
라고 합니다.)
그런 이유로 아직은 신문과 잡지는
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고, 앞으로도
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